

이기는 삶

겸손의 미덕

어느 도시가 길을 가다가 솔개가 생쥐를 막 채가려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생쥐를 측은히 여긴 도사는 급히 달려가서 꼭 움켜쥔 솔개의 발에서 작고 가벼운 생쥐를 빼내 주었다. 도사는 상처를 입은 생쥐를 숲속의 자신의 토굴로 데려가 먹이를 주며 보살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토굴로 다가왔다. 겁에 질려 벌벌 떠는 생쥐를 도사는 크고 사나운 고양이로 변하게 하였다.

얼마 후 숲 속에서 늑대가 짖어댔다. 고양이는 도사에게로 다가가 숨었다. 도사는 고양이를 호랑이로 변하게 하였다. 호랑이가 숲속을 돌아다니자 모든 동물이 겁을 먹고 도망가기에 바빴다.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진 호랑이는 하루 종일 숲 속을 돌아다니며 짐승들 앞에서 우쭐대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본 도사가 호랑이를 꾸짖었다. "그렇게 우쭐대고 다닐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내가 이전에 생쥐였다는 것을 벌써 잊은 것이냐?"

생쥐라는 말을 들은 호랑이는 분하고 창피한 마음에 은혜도 잊어버리고 도시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날 보고 생쥐였다고 하는 놈은 누구든지 죽여 버리겠다." 그러자 도사는 "배은망덕한 놈 다시 생쥐가 되어라."하며 호랑이를 다시 생쥐로 만들어 버렸다. 생쥐

남을 대할 때 거만하지 않고 비하(卑下) 않고 공손한 태도로 몸을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한다. 공동체에서 화목 위해 겸손할 필요 있어

는 숲속으로 달아나 다시는 도시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잘난 체하는 사람을 비유한 이야기다.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 행위를 망용이라고 한다. 반면에 남을 대할 때에 거만하지 않고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비하(卑下)하지 않으며 공손한 태도로 스스로 몸을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한다. 우리 선조들은 모름지기 손윗사람에게 겸손하고 동등한 사람에게 예절 바

르며 아랫사람에게는 고결해야 한다고 가르쳐왔다. 예절이란 남과 화목함을 으뜸으로 삼는다. 우선 겸손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강물이 모든 골짜기의 물을 포용할 수 있음은 아래로 흐르기 때문이다. 오로지 아래로 낮출 수 있으면 결국

위로도 오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은 것이다. 불경 잡야함 월유경에도 이르기를 마땅히 부드럽게 살고, 처음으로 신자 된 이처럼 수줍어하고 겸손하며, 마음을 단속하고 태도를 바르게 하여 익숙한 일도 조심스럽게 하라고 하였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높이고 제 몸을 낮추는 것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이고 기본적인 미덕이다. 인간(人間)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사

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뜻하고 있으니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좁게는 가족, 친지간에도 양보와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 범위를 넓혀 타인과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 조화로운 분위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온유함과 관대함과 겸손이 필요하다.

자극히 겸손한 마음이 바로 이타심이다. 자신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서 이익을 얻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교만과 아집을 떨쳐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세상을 사는 지혜를 얻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노력할수록 그것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고객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 성공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모를지 인간관계나 비즈니스나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올바른 마음이 집에서 비롯된다. 마땅히 부드럽게 살고 처음으로 신자 된 이처럼 수줍어하고 겸손하며 마음을 단속하고 태도를 바르게 하여 익숙한 일도 조심스럽게 하라는 잡야함 월유경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잔잔한 물결처럼 스며든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The way of the mind
마음으로 가는 길

이길은 마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성취는 또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 This is the way of the mind. Therefore the achievement of immortality is also done by the mind. There must be belief in immortality.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생의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 To achieve immortality, one must keep belief in immortality in one's mind.

그러나 마귀는 영생의 확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귀는 영생의 마음을 앗아가기 위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 But, Satan keeps watching the mind, to rob it of the belief in immortality. Satan tries to find a chance to rob the mind of immortality.

어떤 이들은 이긴자가 엄청난 육체적 노동의 연단만 겪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긴자 구세주는 마음의 연단, 마음의 투쟁을 이기신 분입니다.

▶ Some think that the Victor had severe trials of heavy manual labor. But, that is a misunderstanding. The Victor had trials of the mind, mind-struggling trials.

우리도 이긴자 구세주를 따라 마귀와 하나님의 싸움, 마음의 투쟁에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 Following the Victor, we must win the mind-struggling trials, the struggle of Satan and God.*

by Alice

영생의 도는 딱 21일만 제대로 하면 완성이 된다. 더도 덜도 없이 오직 21일이다. 21일만 부처님을 사모하고 놓치지 않으면 부처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21일만에 성도하기'라는 글을 쓰기로 하였다. 필자는 21일간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지 자세하게 알려줄 것이다. 그대로 따라만 하면 누구나 부처를 이룰 수 있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 - 편집자 주

21일 만에 성도(成道)하기 <11일째>

예금했다는 증거를 조사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도 그 사람들이 '죄인이 무슨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하고서 주님의 말을 인정은 안해주는 것이다. 이럴 때는 신도들이 전제가 들고 일어나서 "현금을 하질 않았다. 현금을 했다면 현금을 했다는 증거를 보고서 증거를 확인하고서 정죄를 해라!" 하고서 재판부에 편지를 한

다든지 그런 사실을 재판부에 알려서 죄를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했었다. 그런데 신도들은 지나가는 나그네인 양 구세주가 죄를 받으면 멍하고 쳐다보고 마치 동물원에 동물 구경하는 것처럼 구경만 하고 왔다가는 게, 참말로 우리 신도들이야말로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처함으로써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를 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우리 제단에서는 현금을 부회장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현금을 받은 것처럼 죄를 씌워가지고 징역을 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구세주께서 왜 말도 하지 않고 왜 징역살고 나왔느냐 하면 인류의 죄에 대한 담당을 하지 않으면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묵묵히 그 법에서 정한 대로 징역을 살고 나온 것이다. 설령 구세주의 입장은 이렇지라도 신도들의 입장은 구세주의 무죄함을

밝힐 책임이 있는 것이다. 옛날에 가짜 구세주가 날 뿔 때에는 가짜 구세주를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일까지 마다하며 무수히 충성을 했거늘, 이 진짜 구세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마귀 편에서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은 참으로 주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한심하기 그지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한심한 신자들을 문책하거나 나무라지 않는 것은 그대로 꾸준히 제단을 지키고 나오는 그 성의를 봐서 가혹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관대하고 넓은 사랑이었다. 그리고 구세주께서는 초창기부터 누누이 말씀하신 것으로서 7년 만에 출옥하여 첫 단상에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형제의 사정을 내 사정으로 여겨라. 하는 자유율법을 선포했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우리 식구들 가운데에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약조건이 되느냐 호조건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그런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그러한 율법을 선포한 거예요."라고 말씀하셨다.



성경 상의 7년 대한원은 구세주의 7년 옥중살이를 말한다

구세주께서는 무슨 죄가 있어서 징역을 산 것이 아니다

구세주께서 유죄판결을 받게 된 주된 포인트가 역광에 의해서 빛이 찍혀 나올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슬이라고 거짓말하여 현금을 거두었으니까 사기죄의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여 검사 15년 구형을 했던 것이다. 주님께서는 재판을 받을 때에 판사한테, "판사님이 사진을 찍어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옥중에 있으면서 이렇게 최고랑을 차고 재판을 받고 있는 몸이지만 사진을 찍으면 이슬성신이 찍혀 나옵니다. 나오나, 안 나오나 검증을 해보세

요."라고 하였다.

이에 판사는 실금실금 웃으면서 안 찍는 것이었다. 원래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려면 그 피고인이 말한 것을 전부 검증한 다음에 죄의 유무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다. 재판하는 장소에서도 주님을 찍으면 이슬이 찍혀 나올 것이라는 걸 판사 자신도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 당시 제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내리지도 않는 이슬성신이라는 걸 내린다고 사진을 조작해서 성도들한테 거짓말하여 현금을 거뒀으니까 이걸 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고로 판사는 이슬이 찍혀 나와서 주님을 무죄로 석방시키게 되면 자기의 직책을 유지하지 못하니 그렇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간청을 해도 들은 척만 하고 그 징역을 때린 것이었다.

이렇게 구세주께서는 그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징역을 산 것이 아니다. 구세주라는 사람이 아무 죄도 없이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 7년 동안 그러한 징역을 사는 것은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담

당하기 위해서 그 징역을 산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구세주를 옥중에서 끌어내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썼지만 되어 지지 않은 것은 이미 7년 동안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옥중살이하도록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옥중살이를 꼭 해야만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만약 그 옥중살이를 하지 않으면 우리들을 구원할 길이 없었다고 한다.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려면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으로 만들려면 우리들 속에 있는 나라는 의식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전부 죽여 버려야 한다.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구세주께서는 7년 동안 징역을 받은 것이 죄를 담당하는 것으로서 그친 것이 아니었다. 7년 동안 징역살이하면서 그 마귀들을 100% 없앨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웠던 것이다. 구세주의 죄 담당으로 21일만 자유율법을 잘 지키면 성도(成道)할 수 있다.*

박태선 기자

머리맡에 두면 참 좋은 책



라준경 지음/ 값 10,800원

라준경의 '인생이야기' 휴식 같은 시

현대인은 바쁘다. 쉴 새 없이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러다 지쳐 쓰러져 잠이 든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사이 그들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그는 죽은 사람이나 다를 없다.

이제 종월 때와 장소가 필요하다. 그대의 휴신과 영혼이 잠시 쉴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

저자는 애독하는 시들 중에서 한 뼛을 뽑아내 자신의 감성을 독려 일상사에 접목하여 글을 썼다. 저자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독자들의 지친 영혼에 한줌의 시원한 바람이 될 것이다. 잠들 무렵 그대 옆에 이 한 권의 책을 놓아두라. 그러면 그대는 저자가 말한 쉼 곳으로 인도되리라.

도서출판 해인



지은이 _ 라준경
경북 대구 출생 (1970)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회복지학 수료
현) 대구 승리재단 승사
국제 신인류 문화학회 임원